

# 중흥건설·금호석화 '대기업집단'서 빠지나

### 공정위, 자산 기준 10조원 상향 검토... 다음달 발표 상호 출자·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망서 자유로워 대기업 65곳 중 28개社 적용... 광주·전남 5곳 중 2곳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5조원에서 대폭 상향하고, 규제별로 자산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시되는 자산 10조원 규모 상향 조정과 관련 이에 영향을 받을 지역 연구 기업으로 중흥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이 포함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면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채무보증과 각종 세제혜택 등에서 배제되는 사실상 '총총한 규제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규모 5조원에서 대폭 상향하고, 규제별로 자산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시되는 자산 10조원 규모 상향 조정과 관련 이에 영향을 받을 지역 연구 기업으로 중흥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이 포함돼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면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채무보증과 각종 세제혜택 등에서 배제되는 사실상 '총총한 규제망'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재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부처와 범부처 TF를 운영 중이다. 자산 기준 상향을 위해 각 부처 소관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가 맡았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기준을 준용하는 게 시행령만 38개고, 규칙·고시까지 하면 총 58개 법령을 손봐야 한다"며 "각 부처의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총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산 5조원을 갖 넘는 신생 기업들이 삼성과 같은 거대기업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TF팀은 현재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삼성을 비롯해 모두 65개다. 대기업집단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부영, 금호아시아나, 중흥건설, 금호석유화학 등 광주·전남 관련 기업 5곳이 포함됐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된다면 하림을 비롯해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 셀트리온, 카카오 등 2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데 지역 연구기업 중에서는 중흥건설과 금호석유화학 2곳이 대상이 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28일 광주시 북구 경열로에 오픈한 '무등산 골드클래스'의 건본주택에 분양 예정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골드클래스㈜ 제공>

## 동구 재개발 중심 '무등산 골드클래스'

### 690가구 오늘 특별공급·내일부터 청약

광주시 동구 지원 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 '무등산 골드클래스' 건본주택이 오픈해 본격 분양에 나선다. 골드클래스㈜의 무등산 골드클래스는 광주시 동구 소태동 530-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 지상 19층~22층, 9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90가구 규모로 이뤄져 있다.

단지가 위치한 동구 일대는 대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1만 2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 급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예정이어서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 소태동은 광주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교육, 문화,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어 원

스택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중심전과 무등산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친환경적이다.

무등산 골드클래스는 광주지하철 1호선 학동·중심사입구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광주남초, 무등중이 도보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설열여고를 비롯해 조선대, 광주교대에도 가깝다.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청약, 6월 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6월 8일이며, 정당계약은 6월 13일~15일 3일간이다.

건본주택은 광주시 북구 경열로 250(NC광주역점 앞)에 마련됐다. 분양문의 1600-4119. /김대성기자 bigkim@

## '亞太 스티비어워드'

### 한전, 2년 연속 수상

한국전력공사(사장 조원익)가 지난 27일 호주 시드니 웨스턴호텔에서 열린 '2016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드' 시상식에서 커뮤니케이션·PR 부문 소셜미디어(SNS) 혁신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29일 한전에 따르면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스티비어워드는 2002년부터 전 세계 기업·기관들의 비즈니스 성과를 평가, 시상하는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다.



"농촌 일손돕기 보람차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지난 27일 화순의 한 농가에서 전남농협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40여명이 참여해 '농촌일손돕기로 토마토 줄기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한전이 수상한 아·태 스티비어워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2개 국가와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신설돼 올해 3회째 열렸다.

올해 금상 수상은 지난해 아·태 스티비어워드 동상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한전은 이번 수상에서 공기업 중 가장 많은 SNS팬 12만명 확보 노력과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기·에너지정보를 공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노력을 인정받았다.

한전은 지난 2012년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맞아 펼친 '절전캠페인'을 시작으로 SNS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한 '힘을 내요, 대한민국' 대국민 활력 캠페인은 취업준비생, 지방과 해외 근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신(新)이산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원익 한전사장은 "2년 연속 수상에 힘입어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

## 광주상의, 상무지구 신축 이전 무산되나

### 도시공사와 부지 매각대금 이전 커 협상 중단

광주상공회의소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옥 신축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구 농성동 현 광주상의 건물이 지은지 30년이 넘어 사무공간 부족 등에 따라 시정 인근 상무지구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전 대상 부지는 광주 상무소각장 인근 부지로 광주도시공사 소유 내지 6만 5000㎡ 중 절반 정도를 광주상의가 매입해 신축 건물을 짓는 방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부지 매각대금을 놓고 광주상의

와 도시공사간에 견해차가 너무 커 협상이 중단된 상황이다.

광주상의는 부지 조성비가 수준으로 매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만큼 도시공사가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축 사옥을 통해 지역기업 홍보와 지역 인재 교육 등 현 농성동 사옥에서는 미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현 서구 농성동 건물을 매각하고 추가 비용을 더하면 건물 신축 사업비를 충당

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상의는 예상했다.

도시공사는 그러나 일반분양가격 수준인 3.3㎡당 300만~400만원 정도의 매각가를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소각장 인근 해당 부지에 광주상의 이전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설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협상은 거의 중단된 상태로 광주상의 내부에서는 이전 사업이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사옥 이전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지만 입찰자가 커 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세운건설, 극동건설까지 품었다

### 금광기업·남광토건 등 4년세 3곳 합병... 업계 30위권으로

화순에 본사를 둔 세운건설이 금광기업, 남광토건에 이어 극동건설까지 품어 안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 부장판사)는 27일 극동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세운건설은 극동건설의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주시 지배력까지 세운건설에 넘기면 회생절차는 마무리된다.

세운건설은 극동건설 인수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 등을 이유로 회생 계획안을 부결시키면서 그동안 진통을 겪어왔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14년 8월 조기 종결했다. 이후 주주협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인수합병을 추진했고, 가격 등의 문제로 세차례 유찰한 뒤 네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세운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 간에 차이

가 크자, 회생채무를 재조정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초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편 세운건설은 지난 2012년에는 금광기업을, 지난해에는 남광토건을 인수하고, 이번에는 극동건설까지 인수하면서 시공능력평가액만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30위권 이내의 대형건설사로 올라설 전망이다. /김대성기자bigkim@

로또복권 (제70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4 8 23 33 42 4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3,865,190,344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4,825,395	47
3 5개 숫자일치	1,351,938	1,906
4 4개 숫자일치	50,000	95,021
5 3개 숫자일치	5,000	1,519,932

#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성보산업개발(주) 임직원일동  
O i l B i z 임직원일동  
광양사랑병원 임직원일동  
광양시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재숙  
광양원예농협 조합장 김영배  
광양시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재숙  
동광양농협 조합장 이인호  
광양농협 조합장 김봉안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효수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민영방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직원일동  
광양시의장 서경식 외 일동